

# 삶의 방식, 문화·산업 한뿌리... '상생 사업'으로 공동체 복원



구례 오산 사성암에서 바라본 섬진강과 구례읍내. 구례읍내에서 문척교(왼쪽다리)를 건너 독방길을 따라 동해마을까지 백의중근길이 이어진다.

〈평주일보 자료사진〉

## 닷 올리는 江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 ③ 왜 섬진강인가

가장 서정적이고, 한국인의 삶과 닮아 있는 강은 단연 섬진강이다. 전북 진안과 임실의 상류에서부터 곡성·순창·남원의 중류, 구례·광양, 경남 하동의 하류로 이어지는 섬진강에는 영호남뿐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애환이 담겨 있다.

최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공약에 따라 섬진강 일대를 개발하는 기본 구상을 발표하는 등 '섬진강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섬진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섬진강은 호남과 영남의 경계를 넘어 한민족이 함께 살아온 터전을 만들어준 '어머니의 강'이며, 강을 건너들며 삶을 이어온 영호남의 역사가 담긴 '형제의 강'이다.

◇섬진강변 지자체 한목소리=섬진강을 영호남이 상생할 수 있는 화해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은 섬진강을 끼고 있는 영호남 지자체들의 오랜 소망이었다.

과거 섬진강에서 함께 물고기와 재첩을 잡고, 영남 처녀가 섬진강을 건너 호남으로 시집을 오는 등 영호남이 어우러져 살았던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또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함께 가꾸고 보존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섬진강을 낀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 구상 발표에 앞서 지난해 9월 '섬진강 선언'이라는 의미 있는 발표를 했다.

광양·순천시와 구례군, 경남 하동·남해군 등 섬진강 인근 11개 자치단체가 1997년 구성한 섬진강환경경쟁협회는 국회에서 섬진강 선언식을 열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섬진강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섬진강 살리기 연구구역, 수질 개선 계획 수립 등을 해왔다.

이 선언은 우선 '섬진강 현황에 대한 종합조사사업'을 촉구했다. 섬진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모든 개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또 국내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점을 감안해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라는 목소리도 담았다.

정부의 사업 추진에 앞서 섬진강 인근 지자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은 화합과 상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막대한 예산 지원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겠지만 일선 지자체와 해당 주민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벚꽃·매화 등 축제 통합 쉽고 고흥·사천, 우주·항공 '시너지' 광양·남해 국제여객항 개발 등 영호남 공동 지원...화합 발판

◇비슷한 문화·경제 환경=정부의 동서통합지대는 단순히 섬진강 일대에 화합의 장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섬진강을 낀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해 이들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동서통합지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섬진강 일대 지자체들이 비슷한 삶의 방식과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서통합지대가 섬진강 일대에 조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섬진강 일대에서는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유사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따뜻한 겨울 날씨 등으로 개화 시기가 비슷한 벚꽃과 매화 등을 내건 축제가 많아 이를 하나로 묶어내기가 쉽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아름다운 섬진강을 배경으로 형성된 문화와 축제를 활용해 관광자원화하고, 광양항과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등을 기반으로 해양 관광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여수와 광양, 남해 등지의 항구를 국제여객, 마arina 기능을 갖

춘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한쪽 지역에만 예산을 배정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하겠지만 섬진강 일대 지자체들이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영호남 지자체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 발판이 쉽다는 말이다. 이는 섬진강이 동서통합지대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 영호남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산업도 공동 지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산업이 고흥과 경남 사천 등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이다. 과거 이들 지역은 관련 특별법 제정 과정에 자신의 지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정부가 동서통합지대라는 큰 그림 안에 고흥과 사천을 우주항공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워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정부는 고흥에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진주·사천에는 항공산업 거점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 구상에 포함된 해양플랜트 신산업벨트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하동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대학교·대학원을 설립하는 대신, 여수에는 중소형 조선수리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한 지역만을 독점 지원하는 '차별'이 아닌, 여러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섬진강의 가장 큰 장점인 셈이다.

또 이를 통해 영호남이 경쟁과 질서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도 가능하게 된다. 영호남 통합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며 자연스럽게 화합할 수 있는 장이 가능해진 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립니다.



####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웨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oc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